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에 “TEXTALYZER(텍스터라이저)”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

사고 직전에 휴대폰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위원회는 회원단체, 지지자, 법 전문가 및 기타 관련자들과 함께 기술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 확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교통안전 위원회에 사고 직전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한 “Textalyzer” 기술을 배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타 관련자들과 함께 이 기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보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과 타인을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이 조사는 새로 떠오르는 기술을 사용하여 이런 무모한 행위를 단속하고 그 결과를 완전히 평가하여 우리가 뉴욕시민들에 대한 안전과 사생활 보호의 효과를 검증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와 그 회원단체가 배울 내용:

- 기존 기술.
- 이런 기술의 구현과 사용에 관련한 헌법과 법적 문제.
- 이런 기술이 기타 사법권에서의 구현과 사용.
- 뉴욕에서 이런 기술의 구현과 사용에 필요한 법률 개정.
- 기타 필요하다고 여기는 문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의 조사와 다음 단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관심을 가진 단체와의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 관리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부국장 겸 GTSC 대리 회장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장기간 운전자, 모터사이클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에 진전을 가져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터사이클 헬멧, 앞 좌석 동승자 안전띠 및 휴대폰 관련 법을 채택한 첫 번째 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술의 모든 영향을 고려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여 대중안전과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최대한 확보하려 합니다. 우리는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은 위험함을 법 집행과 교육적 캠페인을 통하여 열심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6년 12월의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휴대폰으로 인한 사고로 12명이 사망하였고 2,784명이 다쳤습니다.

이 기간에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120만 건의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217,021건의 티켓이 발부되어 2011년보다 16% 줄었습니다. 2015년에 발부한 티켓 중 39%가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티켓이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